

Deloitte.

韓

福

樂

2024.05 | 제6호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카드뉴스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리더 메시지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6호는
전문가 기고, ‘ESG 공시의 제도화 현황 및 시사점’,
CCG 아젠다, ‘FY2023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을 논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vs. 국내 주요기업 여성 이사진 비중
및 시사점’ 과 최신 주요규제동향 등을 담았습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간물 구독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의
주요소식(발간물, 세미나
등)을 받아보세요!

ESG 공시의 제도화 현황 및 시사점

“ 이해관계자·기업·검증기관·규제당국은 ESG 공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적극 참여해야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고려대 경영대학 유승원 교수

국내 ESG 공시 제도화 준비 현황



82% “지난 5년간 공시부담이 증가했다”

약 80% “1억 이상의 ESG 공시 투자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약 90%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ESG 공시중”

● 대다수 기업이 ESG 의무공시 연기·완화 및 업종별 세부지침, 가이드라인 제공 요청

● 2023년 10월 ESG 의무공시 연기 ('25년 → '26년)

🎯 ESG 공시 투명성 및 공시·평가기준의 제도화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될 전망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



공시기준 구체화

-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
- 업종별 세부지침·가이드라인 제공하여 불확실성 경감



외부검증·인증시스템

- 신뢰성 확보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검증과 인증시스템 도입 필요



중소기업 지원

- 정부, 유관기관/대기업은 ESG 정보의 수집·분석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공시 지원



변화 대응 및 로드맵 설정

- 규제당국은 규제변화 정보 제공, 기업은 공시전략 수정체계 확보
- 시장 불확실성 경감을 위한 ESG 공시제도의 로드맵 설정 필요



지배기구 역할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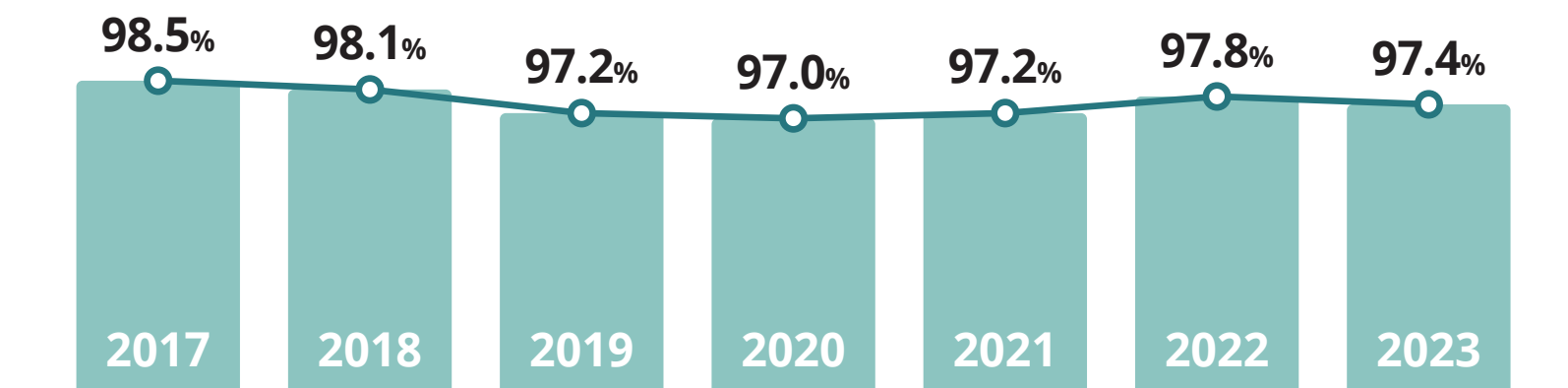
- 이사회·감사위원회의 ESG 리스크 영향 모니터링 및 적극 대응

FY2023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시사점

“ 금융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지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요 조사결과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비율



→ 최근 7년간 큰 폭의 변동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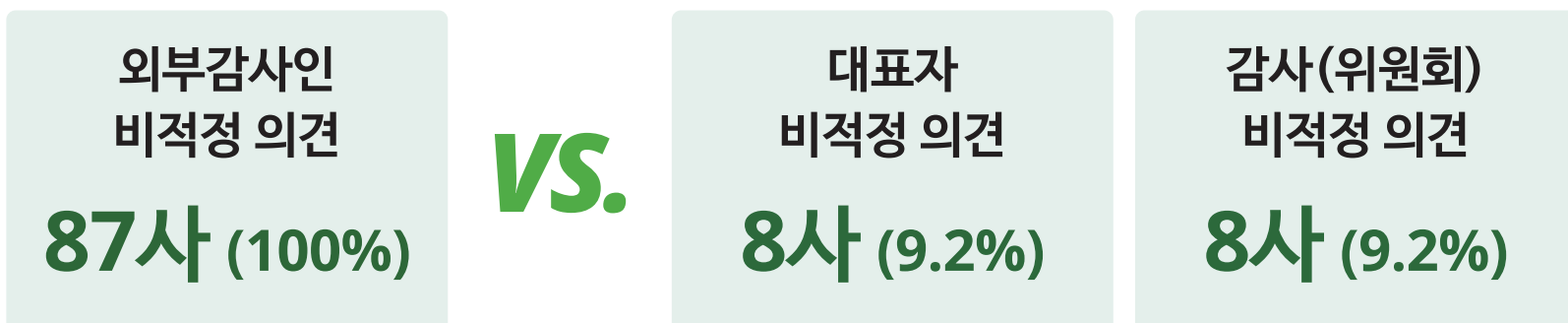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비적정의견 비율 (개별·별도 재무제표)

| | 감사 대상 | 검토 대상 | 감사·검토 대상 |
|-------|------------|------------|-------------------|
| 2023년 | 35사 (2.2%) | 52사 (5.7%) | 87사 (3.3%) |
| 2022년 | 30사 (1.9%) | 54사 (6.4%) | 84사 (3.6%) |

→ 2023년 기준 감사·검토 비적정의견 기업은 총 87사로 전기대비 3사가 증가하였지만 비적정 비율은 3.3%로 전기대비 0.3%p 하락함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비적정의견 기업은 1사임

대표자 및 감사(위원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불일치 해소 필요



* 2023년 12월 말 기준 유가증권,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법인이며 2023년 3월말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DR(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한 총 2,514사임

** 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별·별도 감사 대상은 개별·별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연결 감사 대상은 별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임

글로벌 vs. 국내 주요기업 여성이사 비중 및 시사점

“글로벌 이사회 여성비율(23.3%)은 여전히 이사회 의석의 4분의 1미만에 불과, '22년 이후 3%p 증가에 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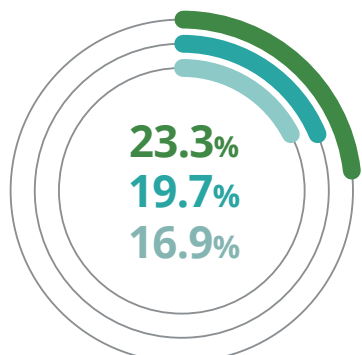
논의 배경

‘우먼 인 더 보드룸’은 50개국 18,000개 이상의 기업 이사직 데이터를 분석하여 글로벌 이사회 여성비율을 파악하고 관련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 제공

이사회·최고경영진 내 여성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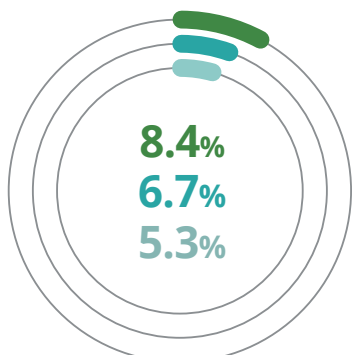
글로벌*1

● 2023 ● 2021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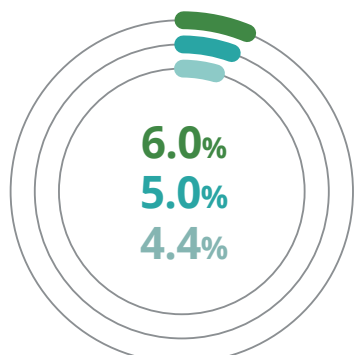
이사회 여성 비율

⬆ '21년 대비 3.6%p 증가
⬇ 2038년 평등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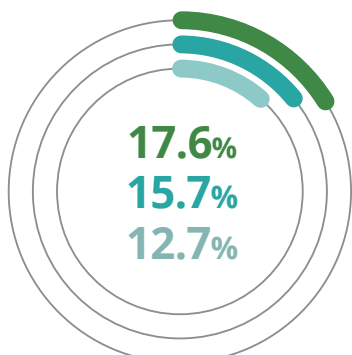
여성 이사회 의장 비율

⬆ '21년 대비 1.7%p 증가
⬇ 2073년 평등 도달



여성 CEO 비율

⬆ '21년 대비 1%p 증가
⬇ 2111년 평등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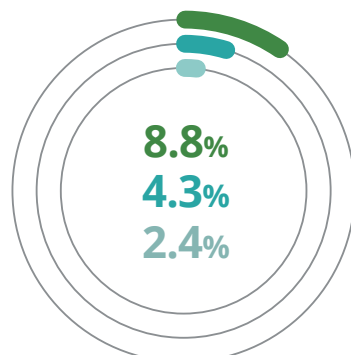


여성 CFO 비율

⬆ '21년 대비 1.9%p 증가
⬇ 2058년 평등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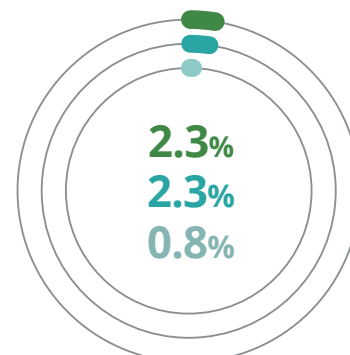
국내*2

● 2023 ● 2021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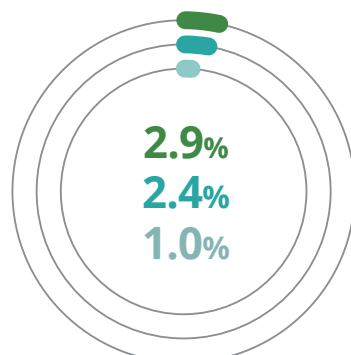
이사회 여성 비율

⬆ '21년 대비 4.5%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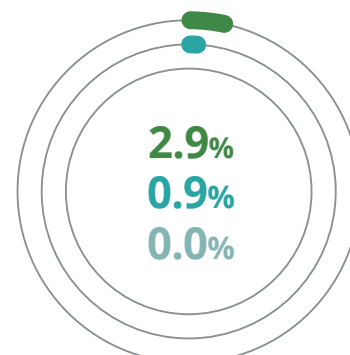
여성 이사회 의장 비율

⬆ '21년과 유사



여성 CEO 비율

⬆ '21년 대비 0.5%p 증가



여성 CFO 비율

⬆ '21년 대비 2%p 증가

*1 총 분석 기업 수는 18,085사이며, 이사회 여성이사 수는 18,532명임

*2 총 분석 기업 수는 461사이며, 이사회 여성이사 수는 253명임

→ 국내의 경우 '23년의 이사회 여성비율은 8.8%로 '21년 조사 시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글로벌 평균 수준인 23.3%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50개국 중 최하위 5개국에 속함

“임기 내에 기업 리더십의 양성 평등을 실현하려면 비즈니스 리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함”

기업 Value-up 프로그램 실행 진행 경과

선순환적 자본시장 구축 통해 상장사와 한국 증시 전체가 진정한 내재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추진경과

- '24.2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독려를 골자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발표
- '24.3 스투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방향 발표
- '24.4 3대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방안 발표
- '24.4 기업의 '계획 미달성시 불성실공시 제재 우려' 관련 면책규정 적용방안 발표
- '24.5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 위한 가이드라인(안) 공개

기업경영 관행 문화로 정착되도록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 예정, 준비되는 기업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토록 지원 계획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5대 핵심특징 보유
 - ↳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집중, 이사회 책임
- ✓ 투자자의 이해편의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목차별 작성방법 제시

| 기재사항 | | |
|------|-------|--|
| 기업개요 | | 업종, 연혁, 제품서비스, 재무실적 등 기본정보 제공 |
| 현황진단 | 사업현황 | 사업모델, 국내외 시장여건, 경쟁우위요소, 리스크요인 등 |
| | 재무지표 |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성장성 등 |
| | 비재무지표 |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측면에서 지배구조 현황 등 |
| 목표설정 | | 중장기목표, 계량화된 수치 등 명료하게 제시 권장, 정성적 서술도 가능 |
| 계획수립 | | 기업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계획 수립, 목표-계획간 연계성 설명 수익성(성장성) 제고 계획, 주주환원 계획, 지배구조 개선 계획 등 수립 |
| 이행평가 | | 목표달성 및 계획이행 여부 평가 전년도 평가 바탕으로 목표 재설정 및 계획 수정 |
| 소통 | | 주주, 시장참여자와 소통현황, 계획, 실적 등 제시 |

2023 ACGA 한국 기업지배구조 평가 동향

Q.

2023년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선정한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은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A.

2023년 ACGA*가 선정한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은 아시아 12개국 중 8위이고, 이는 지난 '18년, '20년에 머무르던 9위에서 1단계 상승한 결과입니다.

(종합점수는 57.1%로 전기 대비 4.2%p 상승)

* 아시아 전역에서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자, 기업 및 규제기관과 협력하는 비영리기관으로, 2년마다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평가보고서를 발간



부문별로 보면 투자자 부문(3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고, 반대 의결권 행사 사유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의미있는 진전이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제도(9위), 상장기업(9위), 시민사회 및 언론(10위) 부문에서 저평가받았습니다.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로는 지배구조 로드맵 설정, 공공협의를 시 의견수렴 프로세스 개선, ESG공시 의무화 조기 시행,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 사내이사를 포함한 이사교육 강화 등이 있습니다.



2024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세미나 개요

대상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 · 감사위원 · 감사 · C레벨 등

일시 2024년 6월 3일(월) 14:00 ~ 17:20
- 16시 30분부터 네트워킹 세션 제공

장소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 The Forum at IFC (3F)

문의 krccg@deloitte.com | 02-6099-4275

*교육확인서 발급 및 KICPA CPD 등록 가능

**세미나 영상은 추후 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예정

세미나 프로그램

대주제 국내 내부통제 현황 및 감독 방향

사회자 :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시간 | 내용 | 담당 |
|-------------|--|--|
| 14:00~14:05 | Opening Remarks |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 |
| 14:05~14:30 | 세션 1. 기초 강연 사례로 짚어보는 고의 또는 중과실 이슈 및 시사점 (내부통제 중심으로) | 박재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 14:30~14:55 | 세션 2.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 |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4:55~15:05 | Break Time | |
| 15:05~15:30 | 세션 3.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방향 | 권대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감사 및 자문그룹 파트너 |
| 15:30~15:45 | 세션 4.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우먼 인 더 보드룸, 2024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 15:45~15:55 | Break Time | |
| 15:55~16:25 | 세션 5. 패널 토론 자금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현황 및 준비사항 | 유승원 좌장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김지운 신한금융지주 감사파트장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혁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전 학술상(공로상) 수상자 &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 개발 및 데이터분석 그룹 수석위원 |
| 16:25~16:30 | Closing Remarks | 장수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감사 및 회계자문본부 본부장 |
| 16:30~17:20 | 네트워킹 세션 | |

* QnA는 각 세션에 포함됩니다.

* 본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파트너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정 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자문교수단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krccg@deloitte.com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Partner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hansukim@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